

전 남

수도권 기업·학교 4곳과 결연·투자협약

6개 행복마을 도농교류 확대

전남도 소득증대 행·재정 지원 나서

전남도가 도내 행복마을을 연고로 하는 수도권 기업과 도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사1촌 자매결연 및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도·농 교류 활성화 및 소득 증대에 나섰다.

전남도는 23일 오후 도청 서재필실에서 도·농 교류 증대와 농특산물 판매를 통한 행복마을 소득 증대를 위해 경기 성남의 MDM그룹 등 2개 기업, 서울 명덕·양천초등학교와 장흥 신덕

행복마을 등 6개 마을 간 자매결연 및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체결로 기업과 학교에서는 행복마을 발전을 위해 지역 농특산물 사주기, 한옥 민박체험,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으며 전남도와 해당 군에서는 지속가능한 행복마을 육성을 위해 도·농 교류 확대 등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장흥 옥촌 행복마을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MDM그룹의 문주현 회장은 장흥 관산 출신으로 '2011년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인물 40인'에 선정된 중견기업인이다. 문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옥촌마을의 특산물인 친환경 쌀(500만원)을 즉석에서 구입했다.

나주출신인 서울 명덕초 임점택 교장은 무안 약실 행복마을·무안 송계 체험마을·완도 느린섬 여행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서울 양천초등학교

교는 장흥 신덕 행복마을·장흥 수문 체험마을·완도 느린섬 여행학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이들 두 학교장들은 "우리 전남 주거문화인 한옥에 농어촌 체험을 접목한 사례는 매우 훌륭하다"며 "앞으로 자매결연 마을과의 끈끈한 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면서 수도권 인근 학교가 더 많이 자매결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행복마을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보성읍의 산야초 효소 제조업체인 강산농원은 벤처기업협회에서 인증한 업체로 (사)행복마을협의회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행복마을에서 계약 재배한 가시오가피·어성초·삼백초·꾸지뽕 등 친환경 산야초를 전량 구매하고 나아가 상품도 전량 수출하겠다는 전략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전국 최대 산철쭉 군락 일품 보성 일림산 '철쭉 문화행사'

내달 5일부터 3일간

전국 최대의 산철쭉 군락지인 일림산(해발 667.5m)에서 철쭉 문화행사가 열린다.

보성군은 5월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일림산에서 철쭉 제례와 산림문화사진 전시 등 다채로운 내

용으로 '제12회 철쭉문화행사'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고향장터 운영과 네일아트 및 페이스 페인팅, 차·철쭉나무 심기 등 각종 체험 행사와 청정지역 이미지에 맞는 등산 문화 실천을 위한 등산흔적 남기지 않기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

다.

일림산 철쭉군락지는 100ha에 달해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매서운 해풍을 맞고 자라 더욱더 붉고 색깔이 선명한데다 어른이 서서 철쭉꽃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가파른 등산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지나해 가을부터 한층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철쭉꽃을 선보이기 위해 등산로와 각종 편의시설 등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선성근기자 sun@

전남농협 농촌사랑 대학생 봉사단 발대

목포대 등 3개 대학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가 후원하는 '대학생 자원봉사단'이 대대적인 농촌사랑 봉사활동에 나선다.

전남농협 농촌사랑 대학생 자원봉사단은 최근 전남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자원봉사단은 목포대와 순천

대·대불대 등 도내 4년제 대학생 50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농촌 일손 돕기와 재해발생시 복구지원, 농촌지역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자원봉사단은 이날 발대식에서 어려운 농업·농촌에 꿈과 희망을 불어넣는 '농촌사랑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농산물 애용운동과



소비촉진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한편 (사)농촌사랑운동본부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원들에게 농촌사랑운동 회원 가입

과 함께 사회봉사활동 인증서를 발급해 줄 계획이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남부 섬 자생 썩 산업화 연구 박차

도 농기원 대량생산·기능성 분석·가공제품 개발 추진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남부 섬지역에 자생하는 썩을 이용한 산업화 연구에 발 벗고 나섰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올해부터 남부 섬지역에 자생하는 썩을 이용한 산업화 연구계획을 수립, 오는 2015년까지 ▲대량생산 및 규모화방법 ▲기능성 분석 ▲가공제품 개발 등을 연구해 특화작목으로 육성한다.

연구진은 실태조사를 통해 남부 섬지역에 자생하는 참썩, 사철썩, 개썩썩, 사자발썩(사진), 더위지기, 짜주아리 등 11 계통의 썩 자원을 수집했다.

연구진은 수집된 썩을 재배하면서 생육특성과 기능성분을 분석해 나뭇



을, 약용, 향료용 등 용도별로 적합한 품종을 선발한 후 재배기술을 개발해 대규모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가공제품을 개발해 산업체에 기술이전하는 등 산업화할 계획이다.

도내 썩 재배면적은 여수시 거문도·진도군 조도 등 173ha(700여 농

가)로 전국(268ha) 재배면적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재배규모가 영세한데다 표준화된 재배기술과 용도에 알맞은 품종이 선발돼 있지 않아 품질의 규격화 및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운 실정이다.

원예연구소 김효중 연구사는 "섬지역 썩 재배면적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나뭇잎이나 떡 가공용으로 95% 이상 소비되고 있다"며 "앞으로 뽕용 등의 약용·향료용·기능성 건강식품·비누 등의 미용제품 등 가공제품을 개발해 농가소득과 부가가치를 향상시켜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5,000만 馬力의 성장동력!

이제, 말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힘이 됩니다.

일찌감치 더 늘어난 **희망의 질주**
 자연이 더 깨끗해지는 **녹색의 질주**
 국민이 더 건강해지는 **행복의 질주**
 경제가 더 튼튼해지는 **약속의 질주**

2011년 9월, 말산업 육성법 시행으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새로운 질주가 시작됩니다

말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말산업은 말의 생산·육성·유통·이용 등 말과 관련된 국가 육성 사업으로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 신성장 산업입니다.



23일 오후 4시 전남도립도서관에서 열린 올해의 책 선포식에 참석한 박준영 전남지사를 비롯한 관계자와 학생들이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도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민, 한 책 읽기' 선포식

전남도 도립도서관·한승원씨 독서 강연도

전남도는 23일 오후 도립도서관에서 '전남도민, 한 책 읽기(One Book) 읽기' 올해의 책 선포식을 개최했다.

도립도서관은 도서선정위원회에서 선별한 어린이·청소년·일반 등 3개 분야 17권의 후보도서를 대상으로 지난 9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투표를 통해 올해의 책으로 '마당을 나온 암탉', '완득이', '엄마를 부탁해' 등 3권을 선정했다.

여기에 도서관이 '김대중 저서집'을 특별 추천해 이들 4권을 대상으로 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에서는 지역 대표 작가인 한승원씨를 초청, '책 읽기란 무엇인가'란 주제로 독서 강연을

열었다.

한씨는 "책을 읽으면 깨달음과 감동을 얻어 우리 몸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책을 읽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선포식에선 NH농협 전남지역 본부가 1000만원 상당의 도서를 기증하고 올해 선정된 도서 일부를 책 나눔을 통해 선포식에 참여한 도민에게 배부했다.

전남도는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독서릴레이 ▲저자의 만남 ▲북 콘서트(낭독회·작은음악회) ▲독서왕 선발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해 책 읽는 문화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충무공 이순신 장군 애국 훈 느껴보세요" 내달부터 '명랑역사 체험마당'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애국 훈을 느낄 수 있는 '2012 명랑역사 체험마당'이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매주 토·일요일 해남군 문내 우수영에서 개최된다.

'명랑 역사체험마당'은 지난해 총 10회 펼쳐졌던 것을 올해 대폭 확대해 조선시대 저자거리 체험 행사 위주로 운영한다.

공인행사는 7월과 8월 여름 휴가철에 집중해 우수영 수문장 교대식과 강강술래 공연 및 대동한마당을 펼쳐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관광객들의 발길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저자거리 체험행사는 오는 5월 5일부터 8월 26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다.

장군복 입고 사진찍기 등 복식체험과 함께 이순신 어록 탁본체험, 거북선 그리기, 신호연 만들기 및 날리기 체험, 백의종군 달구지 체험, 조선시대 전통 대장간체험, 짚풀공예체험, 향토음식점 운영 및 향토농산물 판매가 펼쳐진다. 오는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6회 개최되는 '우수영 수문장 교대식'은 취타대와 함께 의식이 재현되며, 우수영강강술래 공연도 관광객과 함께 어우러지는 대동한마당으로 관광객의 흥을 돋운다.

해남군 관계자는 "우수영에 오면 역사체험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